

내란연대 완성하려는 한덕수의 구결정치

국민의힘의 내란연대 완성 노력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과 3일 전 자당이 공식 선출한 김문수 후보에게 3일 내 한덕수와 단일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본선 투표용지에 한덕수 이름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오늘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3 내란의 두둔에 이어 내란연대의 촌극이 또다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설령 후보통합이 되어도 역사적으로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 연대의 본질이 전범연대였듯, 내란총리 한덕수와 내란장관 김문수의 손잡음은 최악의 내란연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덕수 후보의 구결정치입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오늘(5일) 중 만나자고 세 번 말했다”고 애걸하였습니다. 대선후보 일정도 비우고 단일화 협상단을 구성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오늘은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라며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습니다. 한 후보는 단일화가 성사 안 되면 출마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장난입니까. 국민민복을 위해 일하겠다는 출마선언문의 포부에 일말의 진심이라도 담겨 있다면, 당당하게 완주하겠다는 선언을 왜 못하십니까. 그 포부는 조건부 포부였습니까.

한 후보의 인생여정은 한결같이 양지만 쫓아가는 길에 불과했을 뿐 그 어떤 주관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출신임을 숨기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호남 출신을 밝혔다는 일화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칭하는 행동에서 한 후보의 본질을 봅니다. 최근 광주를 방문하여 두 손을 입에 대고 “저도 호남사람”을 외치는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미대사를 팽개치고 고액연봉 무역협회장으로, 김앤장 고문으로 초고액을 수령한 경력, 본인이 함께 동고동락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는 장례식에 참석조차 안 한 행보. 이태원 참사 때는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묻는 외신기자의 답변에는 웃으며 농담하였고, 영빈관 신축예산 낭비를 묻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신문에서 봤다며 신문총리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과연 한 후보에게 정치는 무엇이고 공익은 무엇이며 신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의 등지에 알 낳는 빼꾸기 정치라는 비판만이 귀에 맴돕니다.

어떤 스포츠경기에서도 결승까지 부전승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껏 대선과정의 내란연대에서 결승까지 부전승으로 올라와, 이제 다시 꽃길만 걸으려 구걸하고 있으니 한 후보의 사전에 자기희생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십니까.

한 후보에게 묻습니다. 출마선언이 진심이라면, 그 충언들이 절실하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일화와 무관하게 완주하겠다고 국민들께 당당히 약속부터 하십시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5월 6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 박관천)